

건강 칼럼

변시증, 중심암점 나타나는 황반변성... 발생 원인 · 치료법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정신 건강과 함께 신체적인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눈 건강의 중요성은 빼놓을 수 없다. 시력에 문제가 생기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눈은 한 번 나빠지면 자연적으로 회복되지 않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망막질환에 유의해야 한다. 망막은 우리 눈의 필름 역할을 하는 얇고 투명한 막으로, 눈의 가장 안쪽에서 빛에 대한 정보를 전기적 정보로 전환해 뇌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망막에 이상이 생기면 시야에 왜곡이 생기거나 심한 경우 실명까지 이를 수 있다.

하지만 망막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스스로 자각이 어렵다. 이에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과 정밀검사 및 의료진의 판단에 따른 꾸준한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대표적인 망막질환으로 황반



박성욱

강남 지메스안과 원장

변성이 있다. 황반은 망막 중심부의 신경조직으로 시세포가 가장 많이 밀집된 부위다. 이러한 황반에 노폐물이 쌓여 시력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을 황반변성이라고 한다.

황반변성의 원인은 다양한데, 노화로 인해 황반 부위의 신경세포가 서서히 퇴화하는 것을 주원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도근시로 인한 젊은 황반변성 환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황반변성은 크게 건성 황반변성으로 구분한다. 건성 황반변성은 망막에 드루젠이라는 노폐물이 쌓이면서 기능에 이상이 생

기는 것으로 전체 황반변성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 단계에서는 증상이 심하지 않고 진행 속도가 느린 편이다. 단, 방치하면 습성 황반변성으로 발전할 수 있다.

습성 황반변성은 망막 아래 맥락막에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이 자라는 상태다. 신생혈관은 출혈을 일으켜 중심시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실명을 초래하기도 한다.

만약 시력저하가 나타나거나 선이나 물체가 왜곡돼 보이는 변시증이 나타나면 황반변성은 의심해 볼 수 있다. 황반변성의 망막에 드루젠이라는 노폐물 사물의 일정 부분이 상대적으로

로 어둡게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중심암점 증상이 나타나도 안과 정밀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황반변성의 치료는 진행 속도를 최대한 늦추고 시력저하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습성 황반변성은 주사 치료를 진행하는데, 이는 신생혈관 발생을 억제하고 이미 발생한 신생혈관에서의 누출을 막아 병의 진행을 억제시킨다. 망막 출혈을 넘어 유리체까지 출혈이 발생했다면 유리체절제술 등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망막 이상으로 인한 시력저하는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40대 이상이거나 고도근시, 당뇨가 있는 환자는 정기적으로 안과를 방문해 검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황반변성을 비롯한 망막질환은 응급질환에 해당하는 만큼 다양한 검사 장비를 보유해 정밀검사가 가능하며, 즉각적인 검진과 응급수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시력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설

복지사회의 사각지대

장기간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고 고립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은둔형 외톨이'라고 한다.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한다고 하지만 손길은 제대로 미치지 않고 있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이들을 다시 사회로 끌어내는 것이 공적 보호망의 새로운 과제다. 지난해 10월 전주시 서신동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이 의식을 잃은 아이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여성은 형제나 이웃에게 본인의 상황을 알리지 않고 고립된 생활을 해왔다. 지자체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해당 행정복지센터는 복지 사각지대 대상 안내문이 반송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해 8월까지 도내에서 발굴된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는 25000여 명이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아무리 대상자를 발굴해도 본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긴급복지 지원 제도에서는 주

변이라도 신고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고립돼 있는 사람들은 접근 자체가 더 어렵다. 관계가 단절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은둔형 외톨이는 6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 자발적 고립은 쉽지 않은 속제지만 그래도 풀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 고립은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약이 됐으면 밖으로 나오게끔 끊임없는 진입 체계가 필수적이다. 국내에는 220만 명 이상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해마다 숫자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는 상황이다.

고립을 택한 이들을 일단 그늘 밖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스로 관계를 단절한 이른바 '무연(無緣) 사회'는 선진 복지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고민해야 될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

전북 공직자 재산공개

전북 도지사과 의원 등 공직자 재산 보유 현황이 공개돼 관심을 모았다. 최근 인사혁신처가 단체장과 지방의원, 기관장 등 전북의 공직자 260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재산 규모는 전년 대비 평균 2천만 원 가량 상승을 했다. 채무 감소나 주식 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상화폐가 신고 대상이 되면서 가상 자산 보유 공직자도 다수 확인됐다.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공직자 재산 가운데는 역대 최고가 가상화폐부터 고가의 골프 회원권까지 이색 자산 보유자들이 눈길을 끌었다.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인물로는 208억 원을 신고한 최경식 남원시장이 꼽혔다. 김관영 지사는 25억 3천만 원을 신고했다. 최근 1억 원을 호가해 이슈가 됐던 비트코인

등을 보유한 공직자는 김슬지 의원과 이정린 의원 등 모두 12명이다.

송재기 무주군의회가 가장 많은 1억 6천만 원어치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됐다. 최고 수억 원에 달하는 골프장 회원권도 눈에 띈다. 최경식 시장이 경기도 소재 2억 원짜리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종현 익산시 의원도 각각 제주와 익산에 위치한 회원권 총 5천8백만 원어치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이재 도의원은 8천만 원에 달하는 도자기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회화 작품 등 미술·공예품 10점을 신고했다.

김슬지 도의원은 최근 서울 강남의 백화점에 입점한 연간 매출 29억 원에 달하는 대형 카페를 갖고 있다고 했다.

한편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까지 신고된 재산을 심사해 거짓이나 누락이 발견될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제언

봄꽃 여행 가기 전, 실종 예방을 위한 첫걸음

따뜻한 봄을 맞아 전국 각지에 봄꽃을 보기 위한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경찰청 실종신고 접수 수를 보면 매년 4월부터 점차 늘어난 뒤 6~7월에 정점을 찍는 경향을 보인다.

실종 예방을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아이들과 부모님에 대한 교육과 지문등 사전등록이 있다.

첫 번째로, 여행을 가기 전 각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 제자리에 멈추기 : 부모님이 왔던 길을 돌아와 나를 찾을 수 있게 기다리기 △ 생각하기 : 부모님의 이름, 연락처, 주소를 머릿속으로 천천히 떠올리기 △ 도움 요청하기 : 오래 기다렸는데도 부모님이 오지 않는다면, 주변의 경찰, 아이와 함께 있는 어른, 아동안전지킴이집 표시 가게 직원 등에게 도움을 청하기 등 아이들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부모님들은 실종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왔던 길과 주변을 찾아보고 아이를

찾을 수 없을 시,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좋다. 주변 안내데스크 또는 미야보호소에 안내방송을 요청하고, 112 또는 182로 전화하여 미야 발생 신고를 하도록 한다.

두 번째로, 지문등 사전등록은 실종을 대비해 지문과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히 찾아주는 제도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가 등록 대상이다.

지문등 사전등록 방법은 www.safe182.go.kr 접속 또는 플레이스 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안전드림 앱을 설치 후 직접 등록하는 방법과 가까운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이제는 실종으로부터 안전한 여행을 위한 첫걸음을 지금 당장 시작하여 즐거운 봄꽃 여행으로 좋은 추억을 만들었으면 한다.

김대근고청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여성청소년계 순경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1만6000km 아프리카 대륙 종단한 영국 마라토너



영국 마라토너 러셀 쿡(Russel Cook)이 7일(현지시간) 튀니지 튀니스의 아프리카 대륙 최북단 리스 인젤라 총착점에 지지자들의 축하를 받으며 도착하고 있다. 쿡은 352일 동안 아프리카 남단에서 북단까지 1만6000km를 종단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